

“나의 ‘소박한 그림’은 행복했던 양림동 유년시절”

1974년까지 조미화(61)씨는 광주 양림동 ‘선교사 사택’ 바로 옆에 살았다. 수피아이고 앞에서 점빵을 하던 아버지가 지인의 소개로 기독교병원 고허번(카딩턴)원장의 집사로 25년간 일했다. 이웃인 허철선(허슬리) 목사네 집 포인터는 그녀보다 훨씬 컸다. 그녀의 친구인 파란 눈의, 인형같은 수지를 보려고 친구들이 자주 놀러오곤 했다.

조 씨의 행복했던 양림동 유년시절은 ‘소박한 그림’으로 고스란히 되살아났다. 지금은 사라져 버린 고원장 집이나 메리네 집, 아름다웠던 꽃밭 등이 동화같은 그림으로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에서 열리고 있는 ‘선교사의 시간들 전(20일까지)’을 통해서다. 전시작들은 1970년대 양림동의 풍경화임과 동시에 10대 아이의 시선으로 바라본 ‘생활 풍속화’다.



조미화 씨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서 내려온 조 씨를 10일 전시장에서 만났다. 건넌방은 명함엔 이름과 함께 ‘양림동(楊林洞), 양림동 뒷동산의 유년시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라는 글이 적혀 있다. 이날 전시장을 찾은 나이 든 주민들은 그림 속 건물을 보며 추억을 나누기도 했다. 이번 전시가 의미있는 건 그림과 그녀가 보관중인 사진들을 통해 1960~70년대 양림동 풍경과 인물들의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더 힘든 곳에서 봉사하겠다”며 고원장이 방글라데시로 떠난 후 가족들과 함께 서울로 이사가던 1974년이었으니 46년만의 귀향이다. 어린시절 친구들과 뛰놀던 원목사집과 차고가 멋진 전시공간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으로 변모했고, 이 곳에 전시를 열게 된 게 그녀에게는 꿈같은 일이다.

14살 되던 해 떠난 양림동의 기억은 팍팍했던 서울살이에 늘 등불같은 존재였다. 5년전부터는 블로그에 1970년대 양림동에 대한 기억들을 풀어놓기도 했고, 지난해 10월 부터는 페이스북에 양림동을 소재로 ‘1일 1그림’을 올렸다. 그녀는 정식으로 그림을 배우지는 않았다. 14인치 노트북 화면을 캔버스 삼아 마우스와 스마트펜으로 ‘기억을 꺼내 일기 써내려가듯’ 그림을 그렸다. 이번 전시에는 디지털 그림과 함께 아크릴화, 수채화 등도 함께 선보이고 있다.

“양림동에 대해 그린다고 생각하니 너무 좋았어요. 옛날 살았던 집을 그려볼까, 아이들과 뛰어놀던 동산을 그려볼까 막 이런 저런 생각이 들어 행복했죠. 지금은 사라진 옛날 건물이 남아있다면 정말 근사한 근대문화유산이 됐을텐데 아쉽기도 했



조미화 ‘선교사의 시간들’ 전
20일까지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사택살던 60~70년대 풍경·인물 50여점
46년만에 귀향 ‘양림동 알리고 싶어’

우월순 사택 앞 마당에서 열린 1970년대 결혼식 모습. <사진 위>

친구들이 인형같은 수지를 보러오곤 했던 허 목사네 집 풍경.

조. 양림동에 관해서는 그림 게 너무나 많더군요. 리스트를 뽑아보니 100여개가 넘더라고요.”
지금까지 양림동 시리즈를 70점 정도 그렸고 인터넷에 올리다 보니 저절로 양림동 홍보대사가 됐다.



전시장에 걸린 그림 하나하나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우월순 사택에서 열렸던 파티현상은 14살 소녀의 눈에 신기하기만했다. 당시 기독교병원에서 일하던 오빠 친구와 미국인 간호사의 결혼식 장면을 담은 작품에는 춤추는 ‘코란 외국인들’의 모습과 한복을 차려입은 그녀의 가족, 너무도 맛있었던 아이스크림과 쿠키 등이 담겼다.
고원장 집 최고의 요리사였던 육순이이모의 모습과 그녀가 만들어준 음식, 고원장집 호두나무에 매달려 있던 외줄 그네, 선교사 묘역에서 내려다본 1970년대 마을 풍경, 선교사 자녀들과 동네친구들과 즐기던 썰매 타기, 사직공원 수영장에서 놀던 모습, 감정하는 날 풍경 등 흥미로운 작품이 많다. 특히 기억을 통해 그려낸 1970년대 양림동 지도가 인상적이다. 전시작 중엔 유난히 ‘수선화’가 많다. 전시장 주변에는 노란 수선화가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어렸을 때 선교사 사택엔 꽃과 나무가 많았어요. 복숭아, 포도밭, 블루베리밭도 있었죠. 학교와 교회에서 늘 꽃 당번이었어요. 봄 되면 제일 먼저 피는 게 수선화죠. 힘든 서울살이에서 봄이 되면 고향 언덕에는 수선화가 피겠구나 언제 가볼까 그런 생각을 하며 그렸어요.”

전시장 입구에는 당시의 풍경과 그림 속 실존 인물들을 만날 수 있는 사진도 전시돼 있다. 또 병원에서 미국으로 원조 요청을 하던 시절 보냈던 편지에 붙은 세계 우표와 크리스마스일 등 120여장의 우표도 흥미롭다.

조 씨는 지난해말 어비스 카페에서 양림동 작품으로 작은 전시회를 열었는데, 이 때 기적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림 속에도 등장하는 고원장의 막내 아들 루이스와의 40년만의 재회다. 아버지 대를 이어 의대에 진학한 아들에게 할아버지의 흔적을 보여주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 우연히 그림을 본 루이스는 조 씨를 수소문해 만남이 이뤄졌고, 지금도 편지와 사진도 주고 받으며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전 프로 작가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너무 예쁘게 잘 그려라고 하지 말고, 이 터치로 계속 그려달라고 하더라고요(웃음). 제가 떠나고 나서 요즘 양림동이 많이 유명해지고 서울에도 많이 알려져 기분이 참 좋습니다. 제 작품이 양림동을 알리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조 씨는 앞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진과 그림, 자료 등을 활용해 양림동 관련 책도 출간해 보고 싶다고 했다. /김민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하순 출신 배다인 작가 장편동화 ‘파도 너머 푸른 꿈’ 펴내

강진에 머물던 하멜과 꿈에 대한 이야기

네덜란드 출신 헨드릭 하멜은 유럽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최초로 알린 ‘하멜 표류기’의 저자다. 그는 1653년 일본으로 가려다 풍랑을 만나 제주도에서 난파해 13년 동안 우리나라에 억류돼 있었다. 그러다 일본 나가사키로 탈출해 조국인 네덜란드로 돌아가 조선의 모습을 유럽에 알렸다.

하멜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장편 동화가 출간돼 눈길을 끈다.

하순 출신 배다인 동화작가가 펴낸 ‘파도 너머 푸른 꿈’ (토마토 하우스)은 역사 속 의미 있고 흥미로운 이야기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은 작품이다. 작가는 제주도, 강진, 여수 등지에서 하멜이 머물던 흔적을 좇다 창작의 실마리를 찾았다.

“하멜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때가 언제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나 내 안에 하멜의 삶이 건넌 씨앗이 나도 모르게 싹이 터 오르기 시작했다. 문득 문득 ‘우리말을 몰랐을 텐데 어떻게 의사소통을 했을까?’, ‘음식은 입에 맞았을까?’와 같은 생각과 느낌이 내 안에서 커다란 나무로 성장했다.”

작품은 실존 인물 하멜과 무당의 아들로 태어난 한오라는 가상의 아이가 등장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무당의 자식으로 태어난 주인공 한오의 꿈은 멋진 수군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를 보기 위해 선 글을 배워야 하지만 현실은 엄마를 따라 거리를 배워야 한다. 동네 친구들은 서당에 다니며 글을 배우지만 한오는 매일 아침 국 주문을 외우야



하고 거거리를 따라다니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한오는 빨간 머리에 파란 눈을 한 ‘도깨비아저씨’인 하멜을 만나게 된다. 하멜은 한오에게 더 넓고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며 꿈을 이룰 비밀 작전을 도와주겠다고 한다. “꿈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삶은 죽은 거와 같다고 했지?”라는 말은 한오의 가슴에 불을 지핀다.

배 작가는 “하멜이라는 인물을 각자의 삶 속에 초대해 상상하는 나라를 썼으면 한다. 과거의 한 지점을 현대의 관점으로 재해석해 필요한 영양분을 얻기를 바란다”며 “삶을 살아가는 것은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가는 과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배 작가는 광주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조선대 대학원 국문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동화가 당선돼 등단했으며 대산문화재단 동화 부문 창작기금과 광주전남아동문학인상을 받았다. ‘은골부’, ‘고양이가 데려온 여행’, ‘생각이 들리는 세계’ 등의 창작집이 있으며 현재 조선대 국문과와 광주교육대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피아니스트 조성진, ‘방랑자’ 발매 낭만주의를 느끼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오는 4월 새 앨범으로 팬들과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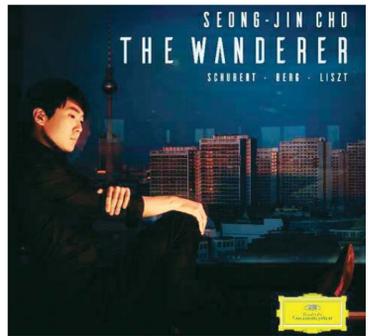
조성진은 오는 4월 3일 새 앨범 ‘The Wanderer (방랑자) - 슈베르트 방랑자 환상곡 & 베르크 리스트 피아노 소나타’를 선보인다.

‘방랑’은 19세기 유행한 낭만주의의 키워드다. 윌리엄 워즈워스를 비롯해 셸리, 바이런 등 낭만주의 시인들은 모두 방랑을 예찬했다. 비슷한 시기에 작곡된 음악에서도 ‘방랑’은 주요 화두였다.

이번 앨범에는 낭만주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이 수록됐다.

우울하지만 화려한 기교가 돋보이는 슈베르트 ‘방랑자 환상곡’, 기교와 파워가 동시에 필요한 리스트 ‘피아노 소나타’, 베르크 ‘피아노 소나타’가 앨범에 담겼다.

조성진은 슈베르트의 작품에 대해 “환상과 상상, 그리고 아티스트의 자유를 보여준다”고 전했다. 또, 리스트의 피아노 소나타에 대해서는 “이번



앨범에 담긴 작품 중 감정이 가장 풍부한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조성진은 2015년 한국인 최초 쇼팽 콩쿠르 우승하며 유럽 정상급 콘서트 피아니스트로 발돋움했다. 쇼팽(2016), 드뷔시(2017), 모차르트(2018) 앨범을 발매했으며 뉴욕 카네기홀을 비롯해 암스테르담 콘서트헤바우, 베를린 캄머홀, LA 윌트디즈니홀 등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중이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선 액세서리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벤들리관광호텔

2020년에도 “각종 연회 행사”는 **벤들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프로야구단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예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